

〈Edge Of Gate〉

: 액션형 JRPG게임(SF판타지장르)

1. 기술적 배경

- 교통수단
- 휴머노이드
- 헬민스 소재 연구
- 플라즈마 기술
- 군용 장비

2. 문화적 배경

- 실바니아
- 세레니아
- 헌터협회
- 언더조이
- 네오스
- 스피티아

3. 시놉시스

4. 스토리

- 고대
- 15년전
- 튜토리얼
- 챕터1
- 챕터2
- 챕터3
- 챕터4
- 희생

1. 기술적 배경

- ✓ 교통수단 : 중력 제한 기술의 개발. 단 해당 장치의 기술적 제한으로 소형화에 차질이 있어 소형차(특히 이륜차 등)에는 적용이 불가. 군용 차량에 본격적으로 탑재된 기능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버스, 응급차량과 같은 공공 차량에서도 시범적으로 탑재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 휴머노이드 : 진보된 의료 기술을 앞세워 점점 영향력을 넓혀간 실바니아는 인력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술을 고안해내기 위해, 전투용 휴머노이드의 개발에 착수했다. 휴머노이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우선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능을 탑재하여 보급하였고, 이후 각 분야에 우수한 성능을 선보인 휴머노이드는 곧 실바니아의 방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 헬민스 소재 연구 : 헬민스들의 신체 구성을 연구 하여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합성 신물질을 발견. 대체로 헬민스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합성 신소재는 가볍고 튼튼하여 인류의 기술 발전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특히 가족의 경우 발전된 고분자 기술과 견줄 만큼 유연하며, 그 이상의 튼튼함을 보장할 수 있는 신소재의 구현함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일부 자산가들이 수집 목적으로 상태가 좋거나 희귀한 외형의 가족을 비싼 가격에 사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 ✓ 플라즈마 기술 : 가볍고 단단한 강도를 지닌 헬민스의 장갑이었으나, 내열에 취약한 점을 연구를 통해 밝혀낸 인류는 곧바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병기를 개발해내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범단계에 있어 불안정하다는 부분이 있다.
- ✓ 군용 장비 : 향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급 전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장비에 다수 탑재하였다.

2. 문화적 배경

✓ 실바니아



실바니아는 다양한 인류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으로 타국가에 비해 한 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떠올랐다. 자연스레 실바니아는 인류 문명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특히 압도적으로 발달한 생명공학의 발전은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다양한 기술을 접목 시킨 '나노 머신'은 실바니아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었으며, 실바니아를 상징하는 독자적인 기술로 자리매김 했다. 한편 뛰어난 유전공학의 지식은 인류의 신체 조직을 영구적으로 강화 시킬 수 있는 강화 인간을 배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 개개인의 질을 높였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VIP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 처치 시도 후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정부와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어 소수의 정부 권력자들과 연구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개인이 가지는 직업과 생활 수준에 따라 빈부격차가 나뉘며 공공 차량 서비스의 등급이나 등을 이유로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구조가 되었다.

✓ 세레니아



실바니아 중심에는 세레니아라는 모든 의료 기술의 핵심 연구소가 모여있는 도시로, 실바니아가 범세계적인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된 구역이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병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수준 높은 치료를 목적으로 구급차 모듈이 항시 대기하여 의료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된 인프라가 다수 존재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진으로 포진되어 있다. 헌터 협회의 본부가 세레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한 곳으로 진정한 주요 시설은 언더조이에 위치하고 있다.

✓ 헌터 협회



본래 인력 사무소로 시작했던 소규모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집단이다. 이 인력 사무소를 눈여겨 본 실바니아 국가는 이 인력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 갑을 관계의 민간 군사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실바니아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임무가 부여, 진행되었고 모든 인원은 훈련생을 포함하여 함구령이 내려지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외출조차 금지되는 일이 빈번했다. 애초에 실바니아가 국제적인 정치외교로 인해 공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불법 공작을 진행하기 위한 계약이었으며, ‘하운드’라는 이름의 특수임무대로서 의무를 부여 받은 이들은 언제 토사구팽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부의 눈을 피하고자 언더조이 지하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기지를 건설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하운드가 타국에서 활동했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실바니아 국가는 발빠르게 하운드 소대를 국가내란죄라는 명분을 들이밀며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운드라는 이름을 버린지 오래였고 이젠 언더조이의 뒷세계에서 자신들을 ‘랩터’ 라고 불렀다. 헌터 협회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첫번째 게이트가 스피티아에 열렸을 때, 실바니아 정보부보다 발빠르게 게이트의 존재를 눈치챈 헌터 협회는 소규모 조사대를 꾸려 게이트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헌터 협회장인 니콜라이를 포함한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망하였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것은 유전공학자인 피터 스틸러 뿐이었다. 그렇게 정체불명의 첫번째 게이트는 그대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

이 사건 이후 니콜라이의 딸인 아리아가 성장하여 정식으로 헌터 협회장을 맡기 전까지, 그의 절친이었던 마이클이 임시 헌터 협회장으로 위임하게 된다.

✓ 언더조이



언더조이는 모종의 이유로 사회에서 도태된 인원들이 모여사는 판자촌, 슬럼 구역을 지칭한다. 독보적인 생명공학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의 실바니아도 양극화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실바니아가 자랑하는 최고급 의료시설은 커녕, 하루 한 끼를 저품질 합성 콩고기로 연명하는 부랑자, 세레니아의 연구 시설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모든걸 잃은 시민, 처음부터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채 태어난 아이 등. 가진 것 없고 잃을 것 없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언더 조이다.

해당 구역은 사회와 격리 되어 있으며, 공권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무법지대와 다름이 없다.

헌터 협회의 비밀 기지가 언더조이 지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엔 장비 설계를 위한 3D프린터 기기, 헬민스의 유전적 정보를 역설계 후 원활히 구현할 수 있는 유전공학 연구소, 풋내기부터 베테랑까지 폭넓게 유용할 수 있는 훈련장 등이 구비되어 있는 본격적인 시설이다.

✓ 네오스



실바니아의 신도시 개발 구획

세레니아와 인접해있으며 기존의 도태된 건축물들은 철거, 시대를 앞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구획이 될 예정이었다.

이곳에서 거주 중이던 하위 계층의 시민들이 강제 퇴거 당하여 대거 언더조이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해, 하위 계층의 불만은 나날히 커져만 갔다. 정부가 앞서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투자했던 야망의 도시는, 현재 헬민스의 유용한 거점이 되어 흥측하게 무너져 내린 폐건물과 거주지를 약속 받은 시민들이 감염된 채 떠도는 절망만이 도사리는 도시가 되었다.

✓ 스피티아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한 현재, 실바니아 국가 내에서 자연의 보존율이 가장 높은 구획이다. 15년 전, 모종의 이유로 민간의 접근이 엄중히 통제되었고 이를 경계 및 보호하는 인원 또한 함부로 내부에 접근할 수 없다.

극소수의 인원만이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부로 진입하였고, 구획 한 가운데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크레이터에서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과 미생물 몇 종을 검출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연구함으로써 신종 미생물이 유기 생명체에게(인간에 더욱)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3. 시놉시스

높이 치솟은 세레니아의 스카이 스크래퍼 뒤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 날의 해는 행성 위로 불시착하는 운석처럼 유독 붉게 타오르며 떨어졌다.

여느 국가가 그랬듯 실바니아는 한 세기가 새로이 시작한다는 기쁨과 설렘을 맞이할 준비 중이었다. 어딜 가나 들리는 축포와 채광에 빛나 반짝이는 꽃들, 각종 고기의 고소한 기름 냄새는 국민들의 흥분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허나 그런 설렘도 잠시, 모든 사건의 시작은 세레니아의 대광장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의 포탈이 열리며 시작된다.

거대한 포탈은 놀라운 속도로 제 크기를 넓혀갔으며 그 속에서 헬민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강렬한 파괴력으로 세레니아를 휩쓸며 무자비하게 나아갔다. 축제 분위기이던 중심지는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다. 즉각 군사동원령이 떨어졌고 정부는 안보위기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였으나 정보력이 거의 무에 준하는 헬민스였기에 당연히 그들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이었다. 점차 힘찬 함성 대신 무기와 두꺼운 살갗이 부딪히는 소리가 광장을 메우기 시작했고 포탈에서 새어 나온 열기가 자욱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죽은 듯이 잠들었던 소년. 소년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낮선 소녀의 품에서 깨어난다.

낮선 소녀는 자신을 과거 중앙 헌터부의 수장이었던 모비어스의 딸이라 소개하며 차근차근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갑자기 원인불명의 거대한 포탈이 등장했고, 우리는 그를 게이트라 칭한다. 실바니아 정부는 당장의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 게이트로부터 쏟아져 나온 헬민스들을 막기 위해 용병들이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연구자들은 헬민스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에 분주하다.

설명을 이어 나가던 소녀는 고개를 돌려 한 노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이는 정부가 헬민스의 조직을 모아오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며 생긴 새로운 상인이다. 소년은 극심한 두통에 표정을 찡그렸다. 소녀의 말이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거니와 그는 그저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의 행방이 궁금할 뿐이었다.

네 아버지는 나에게 너를 지키라는 말만 남기고 게이트 안을 수색하기 위해 떠나셨어. 그래서 게이트는 잠시 닫혀 있는 상황이야. 그때 소년의 귓가로 아버지의 음성이 미세하게 스쳤다. 분별할 수 없는 외계의 언어처럼 들렸지만 그럼에도 소년은 언어를 느낄 수 있었다.

소년은 나지막이 되새겼다.

모두가 하나로 수렴되는 것...? 동시에 푸른 피가 흐르는 혈관이 소년의 눈에 들어왔다.

신비로운 피가 흐르는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이었다. 팔목을 바라보는 소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모든 게 예견된 일이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4. 스토리

고대

자신의 창조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우주함선까지 감염시킨 헬민스.

자신의 자손을 늘려나가며 함선에 탑재된 게이트를 활용, 은하계를 하나하나 집어삼켜갔다.

오랜 시간이 지나 헬민스 내부의 중간 지휘를 담당하는 오버시어 중 변이 개체가 생겨났다.

에인션트 원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야하는 헬민스가 독자적인 사고와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는 곧 에인션트 원과의 의식 링크를 끊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나갔다. 곧 이어 자신만의 목적을 갖게 된 넥시스는 자신만을 따르는 세력과 에인션트 원을 새로 창조해내어 그를 통해 헬민스라는 종족 전체를 자신의 휘하에 두겠다는 야망을 실현할 계획을 준비해갔다.

15년 전

평화로운 실바니아의 한 구석에 위치한 스피티아에 정체 불명의 게이트가 생성

실바니아의 정보 기관보다 한 발 앞서 이를 파악한 헌터 협회가 소규모의 기술자와 경호 인원을 편성하여 게이트를 조사하러 감.

게이트 내부에서 안정성 테스트 중인 오버시어는 게이트를 건너온 인간 집단을 발견.

헬민스에게 처절하게 당하던 헌터 집단. 하지만 니콜라이는 노련하게 그들의 틈새를 노려 차례차례 쓰러뜨린다.

이후, 노쇠한 에인션트 원이 등장. 이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였기에 임시로 니콜라이를 숙주로 삼기로 결정. 니콜라이의 의사는 중요치 않았다.

에인션트 원을 계승 받은 니콜라이.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게이트의 폐쇄를 명령, 헬민스를 유폐하였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망쳐와 변절 개체인 넥시스를 만난 피터 교수.

피터는 그들의 강인한 생명의지를 보고서 죽음을 앞두었다는 공포가 아닌, 탐구심으로부터 온 희열만을 느낄 뿐이었다. 넥시스의 거래 제의. 그것은 분명 거래가 아닌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지만, 자신 또한 헬민스의 일족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한다면 자신의 지식욕을 끝없이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니콜라이가 게이트를 닫기 직전, 헬민스의 핵심 DNA 구조를 넥시스로부터 받은 그는 곧바로 헬민스를 연구하였고, 그는 인류를 헬민스에 최적화 시킬 수 있는 혈청을 개발해냈다.

곧이어 피터 교수는 고아원에서 5살의 아이를 데려와 자신이 개발한 혈청을 주입하였다.

에이든 스틸러. 자신이 다음 넥시스를 만나기 전까지 성장시켜야 할 새로운 에인션트 원의 숙주였다.

튜토리얼

최초로 헬민스와의 조우로부터 15년이 흐른 시점, 그들은 다시 실바니아를 침공해왔고 국가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실바니아를 발전시켰던 기술의 정수가 담긴 세레니아부터, 신도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네오스 구획까지. 헬민스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실바니아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 가운데, 무너진 건물로부터 추락하던 파편에 의해 기절해버린 에이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헌터 협회에 옮겨진 상태였다. 자신의 양아버지인 피터 스틸러는 에이든은 말긴 후로 행방불명 되었으며, 자신을 맡게 된 아리엘. 자신의 팀원인 존, 데이비드와 함께 자신과 활동하라는 제의를 받게 된다. 행방불명된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에이든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에이든은 이윽고 헌터 협회 내의 훈련을 거쳐 신입 헌터의 계급을 배정 받는다.

챕터 1

헌터 협회 내부의 여러 임무를 수행함. 플레이어가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챕터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주로 진행. 피터 교수와 마이클 임시 협회장의 떡밥이 서서히 보여줌

챕터 2

임무 수행 중 우연히 다른 오버시어 개체를 발견. 해당 개체로부터 인간과 헬민스가 근본적으로 서로의 기술을 훔치며 강해지고, 다시 서로를 죽여가는 이 상황에 의문을 재기. 평소 인류를 위해 싸우던 에이든에게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장면.

헌터 협회를 경계하는 정부 기관의 압박이 시작된다.

챕터 3

넥시스를 처치하기 위해 배정된 게이트로 나섬

넥시스는 그런 에이든을 숙주로 삼기 위해 덮치고, 오랜 접점 끝에 넥시스를 무력화하였다.

하지만 방심하고 있던 그들의 뒤로 인류를 배반한 피터 교수가 에이든을 덮쳤다.

찰나의 순간. 넥시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직전.

무언가가 피터 교수를 낚아채어 던졌다.

그 정체는 에인션트 원. 그는 이미 넥시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진정 자신의 계승자를 찾아내기 위해 넥시스를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넥시스가 에인션트 원에게 사망한 후, 에이든을 잡아먹으려고 하나 내면의 니콜라이가 떨어져나와 게이트 밖으로 추방. 후 니콜라이로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앗아온 에인션트 원을 상대하기 위해 에이든은 다시 한번 헬민스가 몰려오는 게이트로 향한다.

챕터 4

본격적으로 헬민스화 된 함선을 뛰어다니며 에인션트 원을 상대하러 가는 에이든. 헌터 협회를 압박해오는 정부 기관의 부리치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온 동료들의 희생을 뒤로 하고 함선의 중심지까지 나아간다. 압도적인 무력의 에인션트 원은 버거웠지만, 에이든은 끝내 자신의 의지를 힘으로서 증명해낸다.

에인션트 원의 패배, 하지만 그가 에이든에게 속삭인 단 한마디.

너의 힘은 헬민스에 어울린다. 너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여기서 에이든은 선택지의 기로에 놓인다.

희생

오랫동안 온 은하계를 헤집어 온 에인션트 원의 생명을 끝장낸 에이든. 주인을 잃은 헬민스 개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곧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생존. 함선 내부의 경계를 유지하던 개체와 더욱 성장이 필요한 개체들 할 것 없이, 게이트로 뛰쳐나가려 하는 헬민스들. 급하게 게이트를 닫고자 했던 에이든과 아리엘이었지만 게이트의 작동은 오로지 에인션트 원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를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아니, 단 한가

지 방법만이 남아있었다. 함선의 파괴. 함선의 기능을 정지 시키면 게이트와 함께 이 지긋지긋한 헬민스들을 단번에 속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에이든은 아리엘에게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헬민스의 개체 최대한 저지할 것을 부탁하며 자신은 함선의 엔진부로 나아갔다. 이윽고 헬민스에 감염된 채 오랜 시간동안 우주를 떠돌던 이 가엾은 함선의 엔진부에 도착한 에이든. 그는 이 끔찍한 악몽에 안식을 선사하겠다 결심하며 플라즈마 수류탄을 던졌다. 내부로부터 강력한 폭발압이 터져나왔고, 이는 게이트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아리엘에게 자세를 잡을 시간을 따워 주지 않았다. 그렇게 게이트와 함께 헬민스의 침공을 종결시킨 에이든. 아리엘은 망연자실한채 헌터 협회의 수송 드론에 이끌려 갈 뿐이었다.

계승

지금까지 인간들의 더러운 면들을 지켜봐오며 인류에 환멸을 느껴오던 에이든.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에인션트 원을 계승한다.

경악하는 아리엘을 뒤로 하며 헬민스의 수장을 이어 받은 에이든.

그것은 진정 경이로운 것이었으며 혼잡한 자신의 정신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짊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에인션트 원에게 맡기는 것으로 영면에 들 수 있을 것이었다.